2022년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예배 GGPC Thanksgiving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시편 136:1-9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2 Give thanks to the God of gods,
for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3 Give thanks to the Lord of lords,
for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4 to him who alone does great wonders,
for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5 to him who by understanding made the heavens,
for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6 to him who spread out the earth above the waters,
for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7 to him who made the great lights,
for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8 the sun to rule over the day,
for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9 the moon and stars to rule over the night,
for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한 2022년에, 아직도 온 세상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며,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 이 때, 저희에게 추수감사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들판에서 추수한 곡식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마다 가정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온 세계가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예배를 통하여 성부성자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선교에 헌신하는 금문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 받을 만한 믿음 He Had Faith to Be Saved

사도행전 Acts 14:6-18

6.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They learned of it, and fled to Lystra and Derbe, cities of Lycaonia, and to the surrounding country.
7.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And there they continued to preach the gospel.
8.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Not at Lystra there was a man sitting who could not use his feet. He was crippled from birth and had never walked.
9.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He listened to Paul speaking. And Paul, looking intently at him, and seeing that he had faith to be saved,
10.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He said in a loud voice, “Stand upright on your feet!” And he sprang up, and began walking.
11.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And when the crowds saw what Paul had done, they lifted up their voices, saying in Lycaonian, “The gods have come down to us in the likeness of men!”
12.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Barnabas they called Zeus, and Paul, Hermes, because he was the chief speaker.
13.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And the priest of Zeus, whose temple was at the entrance of the city, brought oxen and garlands to the gates and wanted to offer sacrifice with the crowds.
14.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But when the apostles Barnabas and Paul heard of it, they tore their garments, and rushed out into the crowd, crying out:
15.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Men! Why are you doing these things? We also are men, of like nature with you. And we bring you good news, that you should turn from these vain things to a living God, who made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sea and all that is in them.
16.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In past generations he allowed, all the nations to walk in their own ways.
17.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Yet he did not leave himself without witness, for he did good by giving you rains from heaven and fruitful seasons, satisfying your hearts with food and gladness.”
18.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Even with these words they scarcely restrained the people from offering sacrifice to them.

할렐루야!
2022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루스드라(Lystra)에는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구원 받을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과연 믿음은 들음에서 났습니다. 바울이 “네 발로 일어서라!”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로 여겨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두 사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오, 인간을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던 사람이 걷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창조입니다.

말씀을 들은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에게 명하여 일어서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표적이었습니다. 말씀이 믿음을 이끌어내고, 그 믿음으로써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매일 일어나는 표적은 말씀과 믿음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 합시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는 무리가 오늘 우리가 추수하여 주님께 바치는 열매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6.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They learned of it, and fled to Lystra and Derbe, cities of Lycaonia, and to the surrounding country.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 및 관리들과 더불어 두 사도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망했습니다. 루스드라(Lystra)와 더베(Derbe)와 그 근방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루가오니아(Lycaonia)의 두 성입니다.

7.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And there they continued to preach the gospel.

그들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루스드라에서 복음 증거할 때 일을 전합니다.

8.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Not at Lystra there was a man sitting who could not use his feet. He was crippled from birth and had never walked.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9.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He listened to Paul speaking. And Paul, looking intently at him, and seeing that he had faith to be saved.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설교하면서 자기의 말을 듣는 그 병자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이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 So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through the word of Christ.
> 로마서 Romans 10:17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Iconium)을 떠나 루스드라(Lystra)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도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말 성경은 "구원 받을만한 믿음이" 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번역은 "건강하게 될 믿음이"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그 중심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병이 낫게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구원 받는 일이 핵심입니다. 믿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병이 나아도 구원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He said in a loud voice, "Stand upright on your feet!" And he sprang up, and began walking.

바울이 크게 외쳤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놀랍게도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것은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과 대단히 흡사했습니다. 베드로(Peter)와 요한(JOhn)이 성전 미문(Beautiful Gate)에서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친 일이 있었습니다.

>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 But Peter said, "I have no silver and gold, but what I do have I giv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 사도행전 Acts 3:6

베드로가 오른 손으로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베드로(Peter)와 요한(John) 때처럼, 그 때 예루살렘에서처럼, 여기 루스드라(Lystra)에서 바울(Paul)과 바나바(Barnabas)를 통하여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발로 일어나 걸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11.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And when the crowds saw what Paul had done, they lifted up their voices, saying in Lycaonian, "The gods have come down to us in the likeness of men!"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여기 루스드라에서도.

그들이 루가오니아 방언(Lycaonian language), 곧 자기들의 방언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한 마디로 바울과 바나바는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12.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Barnabas they called Zeus, and Paul, Hermes, because he was the chief speaker.

신들 중에 우두머리가 제우스(Zeus)입니다. 바나바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로 말을 하므로, 그를 대변인 격인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은 위키페디아 사전에서 인용합니다:

> Hermes is considered the herald of the gods. He is also considered the protector of human heralds, travellers, thieves, merchants, and orators.

13.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And the priest of Zeus, whose temple was at the entrance of the city, brought oxen and garlands to the gates and wanted to offer sacrifice with the crowds.

그뿐 아닙니다. 그 도시의 입구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왔습니다.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리와 함께 그들 두 사람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신으로 섬기는 일은 고대 사회에 흔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또 그랬습니다.

14.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But when the apostles Barnabas and Paul heard of it, they tore their garments, and rushed out into the crowd, crying out:

바나바와 바울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 중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과격한 “행위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15.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Men! Why are you doing these things? We also are men, of like nature with you. And we bring you good news, that you should turn from these vain things to a living God, who made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sea and all that is in them.

바울과 바나바가 말했습니다:

>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을 합니까?
>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증거 하는 인간도 그 영광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이 말씀을 증거 하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 But he said to me, “You must not do that! I am a fellow servant with you and your brothers the prophets, and with those who keep the words of this book. Worship God!
> 요한복음 Revelation 22:9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 하여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복음 전도자들은 그 기쁨에 충만하고 충만합니다. 그 이상 다른 기쁨 없습니다.

16.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In past generations he allowed, all the nations to walk in their own ways.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들로 가는 것을 방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17.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Yet he did not leave himself without witness, for he did good by giving you rains from heaven and fruitful seasons, satisfying your hearts with food and gladness.”

추수감사(Thanksgiving).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 하게 하시기 이전부터 “당신을 증언하신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결실기, 곧 추수감사절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먹을 음식을 주셨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까지 사람들은 추수감사를 하면서도 누구에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한국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조상에게, 산에게, 물에게, 나무에게 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비를 내려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황금물결을 이루는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하여 우리가 추운 겨울에 쌓아놓은 양식으로 밥 해 먹고 떡 해 먹으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 그렇다면 우리가 산에게 감사하고 물에게 감사했던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했군요.
>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
>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표적이 사도들이 증거 한 복음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곧 병자가 낳았던 것입니다.

>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 They will lay their hands on the sick, and they will recover!
> 마가복음 Mark 16:18c

지난 주 월-화요일에 우리는 후파에 다녀왔습니다. 팬데믹 이후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후파(Hoopa)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설교자가 되어 매주 복음을 전하는 헤롤드 존스 형제가 헬리콥터를 타고 UCSF에 실려 왔던 때를 회상했습니다. 헤롤드 부부는 그때 일곱 명의 의사들이, "당신은 평생 일어나 걸을 수 없다!" 고 진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병원 중 하나인 UCSF 의사들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세 차례 심방하여 기도드렸습니다. 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사진들).

지난주에 나는 다섯 가지 표적 중에 네 번째 표적을 집중해서 증거 했습니다.

>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 And if they drink any deadly poison, it will not hurt them.
> 마가복음 Mark 16:18b

오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표적입니다.

모든 표적은 귀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증거 하시는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땅의 소산들" 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선물을 받았으면, 누가 준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매일 먹는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합니다.

18.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Even with these words they scarcely restrained the people from offering sacrifice to them.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칭송을 받았고, 돈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거짓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표적을 어째서 자기들이 했다고 주장합니까?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들은 오늘 여기 샌프란시스코, 데일리시티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는 동안,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적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병자를 보십시오. 바울이 말씀을 증거 했을 때, 그는 주의깊에 들었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치료받았고, 구원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가을입니다. 질병과 전쟁의 참혹한 현실 중에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들판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거두는 곡식은 또 다른 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혼"** 입니다.

후파교회가 놀라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역에 매달 100불씩 헌금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스스로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예배와 집회 후에 두 집을 방문, 심방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진 2)

그리고 수요일에는 마을사람들을 마을센터 앞으로 초청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전도집회를 열었습니다. 송명혜 권사님께서 손으로 짠 수세미와 전도지도 나누었습니다. (사진 3).

오늘 우리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생겼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 3시, 우리는 양로병원에서 성경공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공부 멤버 중 하나였던 아돌포(Adolfo)의 추모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마유미(Maumi)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마유미는 처음으로 복음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교회 예배에 나오려고 했으나, 못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돌포는 마유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부르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장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나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1.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2.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저의 구주로 영접하옵나이다.
3. 예수님의 보혈로써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4. 예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5.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덧없이 짧은 세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에 이르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요한복음 John 3:16

양로병원에서 우리는 예배 후에 인앤아웃 햄버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컵 아래에는 요한복음 3:16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접시 아래에는 잠언 24:16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For the righteous falls seven times and rises again. But the wicked stumble in times of calamity.
잠언 Proverbs 24:16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칠전팔기 합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눈물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면서. 아멘.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마다, 주님께서 동해하여 주시고, 모든 표적과 이사로써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